

# 야성의 들판을 누비는 판긋의 잔치

장 뒤비노 지음 《축제와 문명》을 읽고

김열규

인제대 교수 · 국문학

한 권의 책이 진실로 미지 세계의 모험의 단서가 된다면? 그것도 보드렐이 절규했듯이 '미지의 심연'의 탐닉이 된다면? 이것은 실로 황홀한 상상이다. 그래서 책은 주제나 논리와 같은 실질적인 것 아닌 무엇인가 상징적인 가치를 향유하게 된다. 책은 가장 좋은 뜻의 주물이 될 텐데, 그리고 책읽기는 마술놀음이 될 것인데도?

"아! 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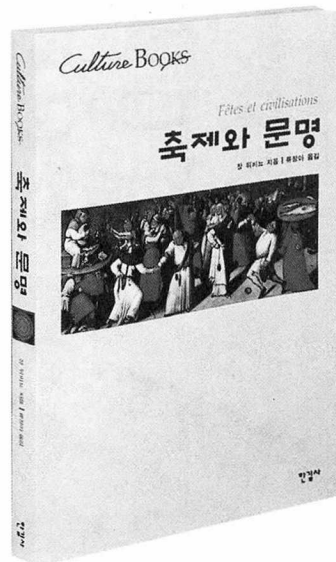
《축제와 문명》(류정아 옮김)은 이 절망스러운 탄성을 깨끗하게 지워낸다. 지적인 탐닉·지적 도취라는, 그 모순된 경지가 이 책에서 스스럼없이 열리게 된다. 다른 것은 다 젖혀놓고서, 우선 책은, 아니 인간의 지적 소산 그 자체는 재미있는 말과 표현의 잔치라는 것으로 독자를 매료시켜야 한다. 현학적이 아니라도 충분히 지적이고, 형식논리 일변도가 아니라도 능히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한다면 한 권의 책은 '언어의 축제'라야 한다.

## 축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언어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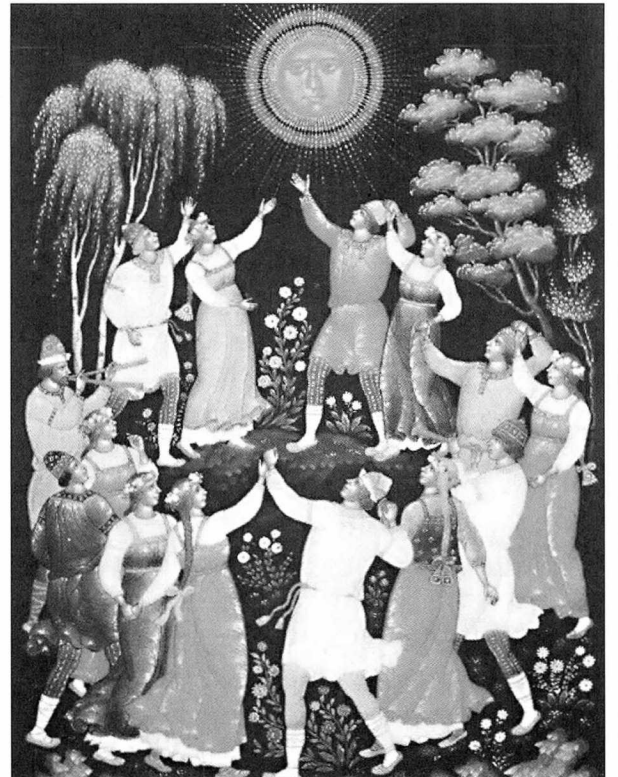
"개인은 절대적인 경지까지 고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간성이 이것보다 더 환상적이며 악마에 홀린 듯한 적은 분명히 없었다", "상상적 사고는 확대된 형태로 실체의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극히 적은 일부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가을날 산언덕에서 밤알 줍기라도 하듯이 우리들이 이런 표현 사이를 즐겨이 오락거릴 수 있는 그 재미, 그 쾌락은 분명히 '축제와 문명'의 몫이다.

이런 분위기로 이 책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면서 그 주제에, 그리고 관념의 세계에 다가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체의 매력도, 수사의 고풍성도 없는 책은 그야말로 김빠진 맥주다. 아니, 찬물에 만 곱탕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책은 그 '언어의 축제'에 어울리게 어떤 '축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식으로 말을 고쳐보자면 이 책은 '판긋'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마당놀이 또는 대동굿이라고도 바꾸어 표현될 수 있을 그 판긋을 자연과 인간문화 및 인간문명 그리고 역사현장이 얽힌 맥락 속에서 다잡아서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유유히 산책



고대 슬라브족의 신성한 존재인 태양신 아릴을 경배하는 축제. (본문 중)



저자는 원시사회부터 프랑크혁명이며 쿠바혁명, 1968년 혁명까지 야성의 들판과 공시적이며 통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멀고 긴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보였다. 거기에는 우리의 판긋과 마당놀이가 한뼉 크게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해두고 싶다.

하듯 다양성과 변화의 문맥 속에서 새김질하고 있는 게 곧 《축제와 문명》이라고 하면 어떨까.

죽음과 옛갈리는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심분 들여다보면서도, 그리고 인류문화사의 배경을 두루 뒤적거리면서 지성의 모자이크를 혹은 아라베스크를 엮고 또 짜내고 있다. 그리하여 뒤비노의 주제는 양념이며 곶명이 듬뿍 쳐지고 간이 알맞게 밴, 또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상과 같은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다. 주제 하나를 알몸인 채로 내놓은 책은 이를테면, 맨 밥 한 그릇 달랑 차려진 밥상과 다를 바 없다. 아니면 그것은 일종의 노출광 취미 같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축제인 판긋은 한 마을이 통째로 하나가 되어 벌이는 고사자 놀이다(지나는 길에 삶은 소리 한마디 하자면 '축제'는 일본식 용어다. '축'을 일반적으로 '축하' 하

나에 묶는다 치면 죽은 이에게 드리는 제사가 원칙인 '제'와 어울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화제'라고 하게 되면 먼저 문화가 죽은 영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무튼 판긋은 야단법석이다. 오죽하면 '야단 굿 났다'고 했겠는가. '난장판'이란 말도 '굿'과는 쌍둥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패악질, 늠패이짓, 발악질에다 쌍것짓이 판을 치는 게 다름아닌 '판긋'이다. 병신춤사위가 판을 치고 문둥이가 설치고 하는 탈춤판은 판긋이 가진 연극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소외되고 쫓겨나 있던 무당, 광대가 난데없이 주역을 맡고 나서는 게 판긋이다.

문화가 일단 질서요, 조직이요, 도그마라고 가정해 보면 야단법석의 판긋은 부정적인 문화기호로서만 값이 매겨질 소지를 안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 내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엮어치기'의 시각을 뒤비노는 견지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놀이와는 달리 축제가 단적으로 '파괴'요, '아노미'요, '공포'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심리적·문화적 효용 되문기를 집요하게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통설 내지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책은 역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다루고 있는 축제가 조직이며 질서, 그리고 구조의 뒤집기이듯이, 이 책 또한 뒤집기다.

## 반란의 축제, 갈등의 축제

한마디로 난장판은 굿판의 연속이고, 굿판의 일부다. 그러면서도 굿판의 절정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뒤집어엮고 매치고 까뒤집지 않고는 굿판의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다른 인류학자들이 '반란의 축제' 내지 '갈등의 축제'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판'은 뒤비노가 축제가 벌어지는 길, 운동장, 광장 등을 '파괴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경우의 바로 그 '영역'과 거의 동의어다. 6·29선언을 이끌어낸 도화선의 하나가 된 우리의 마당놀이를 뒤비노가 앞섰더라면, 틀림없이 온 서구 세계를 휩쓴 저 68년 혁명과 나란히 우리의 마당을 또 다른 '파괴의 영역' 내지 '축제의 영역' 속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마당놀이가 저 판긋의 현대판임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문화'를 평화스럽게만 보면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은폐하게 된다. 어떤 사회도 평화스럽게 상징적으로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은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공포를 감춰버리는 것이다."(99쪽) 이 말은 이미 뒤비노가 축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뒤비노는 원시사회에서부터 프랑크혁명이며 쿠바의 혁명, 그리고 1968년의 혁명까지를 야성의 들판과 도시공간 사이를 누비면서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멀고 긴 시야를 우리에게 열어 보였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판긋과 마당놀이가 한뼉 크게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다. ❖

한길사/A5신/294면/10,000원